

# 시대는 달라졌으나 지구 위에 총소리는 멎지 않았다

## 평화와 번영의 꿈을 불러온 세계화

소련이 해체된 1991년 12월 이후  
오랜 동안 인류를 긴장시켰던 동서 냉전 체제는  
동서 화해 구도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리하여 인류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세계화의 급류를 탔다.  
세계화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담을 허물고  
지구촌 시대의 꿈을 심었다.

##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진 희망

그런 가운데 21세기로 접어든 인류는  
이 새로운 세기가 인류사에 처음으로 전쟁의 종식을 이루는  
세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9·11 테러 참사는  
인류의 그같은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 새로운 대립 양상과 분쟁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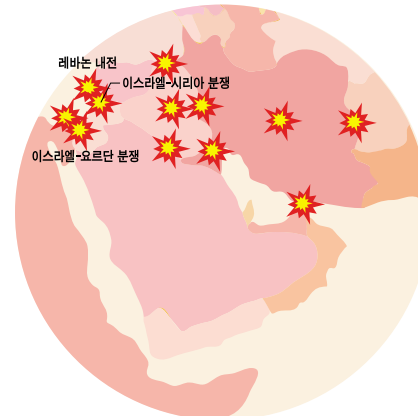
소련의 해체 이후 대규모 세계전쟁의 위험은 극히 낮아졌다.  
그러나 지구 위에서의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민족간, 종족간의 대립, 종교간의 대립 그리고 영토 분쟁...  
그것들은 끊임없는 살상과 보복의 악순환 속에  
테러를 부르며 새로운 전쟁의 위기를 낳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분쟁 또는 분쟁 위험 지역이 80군데 이상  
산재해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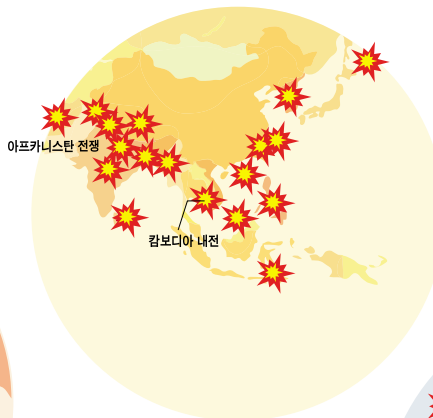
유럽의 분쟁지역



아메리카의 분쟁지역



중동의 분쟁지역



아시아의 분쟁지역



아프리카의 분쟁지역